

의학교육을 향한 새로운 도전들

- 2008 미국의학교육학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 우 택¹⁾

2008년 미국의학교육학회 (AAMC)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산 안토니오 (San Antonio)에서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들과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의학교육에 대하여 생각한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I. 더 좋은 학생 선발을 위한 고민들

미국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입학 관련 활동에 있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지원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여 더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가였고, 두 번째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다양성(diversity)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였다.

1. 지원자 평가

가) MCAT 성적 순으로 뽑지 않는 이유

미국에서의 통계를 보면, 지원자들을 선발

하여 입학시킨 후 그들의 의과대학에서의 학업 성취 등을 본다면, 학교 평량 평점(GPA) 보다는 MCAT (미국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국 시험, 우리나라 MEET에 해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의대들은 MCAT 성적 순으로 입학을 시키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 1) 의학공부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 학술적 역량을 갖추어야 따라갈 수 있다.
- 2) 그러나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 학술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학생이 더 우수한 의학에서의 학업 능력이나 의서로서의 능력을 갖출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3) 또한 과거의 학업 성적은 앞으로의 학업 성적을 예측하게 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즉 바람직한 의사로서의 행동을 잘 할지를 성적만을 근거로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MCAT 성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 두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노력을

1) 교신저자 :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Tel : 02)2228-2510 Fax:364-5450
E-mail : wtjeon@yuhs.ac

하고 있었다. 결국 면접을 통하여 가장 우수하고 적합한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미국 대학들은 하고 있었다.

나)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

그러나 매우 선명하고 객관적인 수치인 MCAT 성적이나 GPA 성적이 아닌, 면접을 통하여 좋은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학생 평가에 있어 전체적 평가(Holistic Review)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 눈에 띄는 미국 의대들의 면접의 주안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 특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면접을 실시한다.

그 학교가 가진 설립 목표와 교육 철학, 교육 목적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는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즉 그 대학이 최고의 연구의학자들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 봉사할 우수한 임상의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등, 각 대학의 다양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에 딱 맞는 학생들을 뽑도록 노력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이 어떤 대학에서는 우수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으나, 어떤 대학에서는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각 의과대학은 그 대학의 특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2) 의사에게 필요로 되는 가장 근본적 능력에 대한 점검을 하기 원하였다.

미국 의과대학들은 미국의 의사들이 가지기 원하는 특성을 현재 미국이 놓여있는 의료적, 사회적 상황 분석에서부터 찾고 있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 미국 의학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즉 과학 기술에 편중되어 있고, 일차 의료로부터 점점 멀어져 더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며, 부자 지역에 의사들이 편중되어 있으며, 의사 본연의 일에서 주식 투자 등의 타 업무로 관심들과 시간의 사용이 많아지며, 일의 부담(workload)이 과거보다 감소하고 또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바람직한 의사와 지원자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것은 지적능력, 직업에 대한 헌신도, 문화적 예민성, 공감 능력,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감정적인 회복력, 강한 도덕력과 의지력을 가진 성격, 대인관계 기술, 호기심과 열정 등이었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중요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3) 중요하게 보는 특성 세 가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면접시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그 학생이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난관을 극복한 경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과정상 있었던 난관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GPA 성적이 점차 더 향상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낮은 성적에서 점차 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

다. 셋째, 팀워크를 잘 맞추어 본 경험을 가진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 (4) 모든 것을 적당히 다 갖춘 학생이 아니라, 일부 뚜렷한 약점이 있어도, 장점과 매력이 있는 학생을 뽑으려 한다.

지금 당장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탈락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정 영역에서 부족한 것이 눈에 띄는 학생들은 일단 입학 시키고 나서 특정 부분에 대한 교육을 과외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충하여 주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학생 선발은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더 다가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 (5) 한 번의 면담으로 다 끝내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의대들은 면접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 번의 면접을 통하여 합격을 보장해 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시 2차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미국의 Central Florida 의대의 경우, 2명의 면담자가 45분 정도 지원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입학 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위원회에서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 (6) 면접 시 꼭 말을 잘해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면접시험에서 단순히 인터뷰 기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 중 아주 작은 부분이 인터뷰 기술인데, 그것이 면접에서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학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면접 기술을 훈련받은 학생들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질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입학생의 다양성 확보

미국의 의전원은 입학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다양성은 일차적으로 인종적인 측면의 것으로 보였으나, 그것은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문화권 등 다양한 의미의 측면을 가진 것이었다. 미국도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특정한 집단 출신들은 의과대학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인종적으로 부유한 백인 학생들만 들어오지 않고, 부모가 모두 대학을 나오지 못한 중산층 이하의 백인, 가난한 빈민가 출신의 흑인 학생들, 아시아계 학생 등 다양한 인종,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아마, 이런 다양성은 그 외에도, 졸업 이후 연구자로서 활동할 사람, 임상의로서 활동할 사람, 지역사회 리더나 국제보건문제 전문가로서 일할 사람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 학생들을 뽑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입학 관리와 선발을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II. 더 넓은 의학교육의 시각을 위한 생각들

1. 사회와 의과학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이번 학회에서 이루어진 전체 강의 중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과학과 대중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의과학은 대표적인 과학의 한 부분이고, 의과학자들은 대중들과 가장 밀접한 과학자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의과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과학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및 대중이 과학과 같음을 가지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치경제적으로 유리한 것과 과학적 사실이 때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과학적으로 지구온난화는 가장 심각한 인류의 문제이지만, 당장 경제적 성장을 만들어 내야하는 정치계나 일반 대중들에게 지구온난화 이슈는 골치 아픈 것이다.
- 2) 인간의 핵심가치와 과학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첫째로, stem cell, cloning 같은 것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 생각에 도전이 된다. 둘째로, 성(sex), gender behavior, 지능, 공격성, 개인성격 등 아주 사적인 주제들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과학적 연구에 대중은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셋째로,

진화론에 대한 연구 등은 인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는 주제가 되어 불편감을 가지게 한다.

- 3) 뇌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들이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뇌에 대한 연구는 인간 정신의 특성 (nature of mind), mind-body-soul 의 개념, 자유의지와 결정론 등, 인간의 본질에 대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 둘째, 신경과학 연구를 통하여 누군가 내 속마음을 읽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된다. 셋째, 뇌손상을 입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 문제가 신경과학 연구를 통하여 제기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격, 실존, 책임 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불편한 내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과학을 존경하면서도 불편해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 지고, 과학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과학 자체를 위하여 더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것은 인간과 과학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현상을 만든다. 따라서 과학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사회를 향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교육을 통하여 과학을 더 많이 알려야 한다. 그러나 과학에 대하여 널리 알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 교육을 넘어 대중과의 소통(engagement)을 이루어야 한다. 즉 대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 그들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이 과학과 기술에 대하여 가진 생각과

관심을 이해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연구의 우선 순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주체로서 과학자 개인, 과학자 단체, 연구소, 대학 등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의과대학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대중과 과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배경 - 지지하는 데이터 - 결과 - 결론의 순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결론적 입장(bottom line) - 그래서? (So What?) - 그것을 지지하는 자세한 내용 (supporting details) 순으로 그들의 의사전달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전달과 소통을 위하여 과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대중들의 의사전달 사고방식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 사이의 평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들은 결국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의학교육은 과학교육이며, 과학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학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과학의 문제들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학적 마인드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인가? 기본적인 과학적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없이 단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과학적 마인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의학교육학회에서 이와 같이 의학의 과학성과 사회가 가지는 갈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하는 내용이 다루어 진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의료와 의사들은 사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

이번 미국 의학교육학회에서는 여러 발제를 통하여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의료 비보험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정부나 정치계가 아닌, 의사집단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에 대한 의사들의 조직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었다. 이러한 의사들의 강조와 노력은 대중의 의사들에 대한 공적인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 내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 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의사들이 적극적인 위치에 있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었다.

실제로 전체 강연의 연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단순히 의사들 및 의학교육 관련자들만을 선택하고 있지 않았다. Ted Koppel 과 같은 앵커맨을 불러 그에게 다양한 사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의학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III. 새로운 의학교육의 영역들

1. 직종간 상호이해교육

(Inter-professional Education)

이번 학회 중 본 것 중 아주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의대생들에게 의료계의 타 직종 사람들, 즉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런 교육을 강조하는 목표는 이들 타 직종의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그들이 훈련 받는 내용,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윤리적 측면, 팀워크를 가지는 것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있었다. 그리고 간호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 등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레지던트가 1일 간호사로 간호사의 감독 하에 간호사 업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보고 되었다. 결국 양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여기서도 지식, 술기, 태도가 필요, 일종의 팀워크 트레이닝이 필요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팀으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2) 다른 팀원의 역할, 받은 훈련,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3)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의 원칙을 알며, 4)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접근 및 해결 방법을 알고, 5) 관련되어 있는 상황의 큰 시스템과 작은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들을 통하여 의사와 간호사는 cooperation 단계에서 coordination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collaboration 의 단계에 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2. Professionalism의 교육과 임상실습의 연계

매번 학회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

는 주제 중 하나인 professionalism 이 이번 학회에서도 다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번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프로페셔널 교육은 별도의 강의가 아닌 임상 실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상 교수들은 학생들의 professionalism 과 관련된 행동을 임상 실습 시간 중 관찰하였고, 그 내용을 실습 평가지에 써 놓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 평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6개였다.

- 1) honesty, integrity(성실) - 믿을 만 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것.
- 2) 책임성, 신뢰성 - 정확성, 순종적, 책임감, 반응적
- 3) 타인에 대한 존중 - 팀워크, 용모, 반응
- 4) 이타주의적 태도 -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 동정
- 5) 탁월성에 대한 헌신- 목표를 두고 행동하기, 동기
- 6) 환자에 대한 존중 - 관계, 비밀 유지

실제로 임상 교수들이 이런 영역 모두를 다 평가하고 기록에 남기는 일은 많지 않았다고 하였고, 대부분 책임성,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professionalism 교육을 이론적인 강의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임상 실습 속에서 구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3. Texas 의대의 Skills Lab 운영의 예

세계 의학 교육에서도 그러하고, 현재 우리 대학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Skills Lab 이다. 본 학회 기간 중 Texas 의과대학의 Skill's Lab Center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곳에서 관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과 운영

이곳은 기존 건물의 2개 층을 전부 쓰는 것으로 2005년도에 총 500만 불을 들여 만든 곳이었다. 건물 건축과 연관되어 300만불, 시설 투자에 200만불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공간 구조 상 눈에 띄는 특징은 3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강의실을 4개 가지고 있고, 각 방에 커다란 비디오 스크린이 있어 학생들이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Sim-Room은 여러 개의 Sim-Man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어져 있어,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가 관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20개의 CPX 각 방 문 앞에 환자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노트북 설치 box 가 있어 그것을 통하여 EMR 자료를 미리 보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이 있었다. 조직 구조에 있어서 Academic Affair Vice Dean 의 직할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별도의 센터장을 두지 않은 상태였다. 스태프는 4명으로 2명의 트레이너, 1명의 coordinator, 1명의 기술지원자가 있었다. 운영에 있어 매우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모의환자(SP)는 시간당 15불을 주고 있고, 보통 하루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여기에 고정적으로 고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다.

2) 교육 프로그램

이 공간의 사용은 크게 학생들과 레지던트로 나눌 수 있었다. 학생들은 1학년은 학기가 시작되고 2달 이후부터 Physical Examination을 여기서 배우고 2학년은 5개의 module을 가지고 실습 학습을 여기서 하며, 그에 대한 학기말 시험을 여기서 본다고 하였다. 3학년은 내과 외과 실습을 여기서 SP를 이용하여 교육받고, 4학년은 통합적 환자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서 수행하고, 국가고시 실기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가정의학도 6주간 실습하고 실습시험을 여기서 치른다고 하였다. 즉 전체 학년 모두가 여기에서 실습 습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부속 병원 레지던트 교육 프로그램도 여기서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2년차 시작 시점에서 여기서 시험을 치르고 통과되어야 2년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다 이 공간을 쓰기 위하여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IV. 기타

기타 사항으로 학회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눈에 띄었다.

- 1) NIH에 학생 프로그램이 있었다. 본 3이면 지원이 가능하여 우리 대학의 경우, 특성화 선택과정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2) 각 의대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 특성과 현안 문제를 의학교육에 접목시키

는 노력들이 보였다. 예를 들어 샌프란스스코 의대는 게이, 레스비언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미네소타는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우리 대학의 경우, 예를 들어 탈북자들에게 대한 의료 지원 문제 등을 다루는 선택과목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내용이 국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 임상 실습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조가 보였다. 존스홉킨스 의대인 경우, 환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첫 가운을 입을 때 자신의 mission statement를 쓰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생들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잘 디자인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함을 보여 주었다.

- 4)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갈 수 있는 멘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의사라는 직을 돈을 버는 직업으로만 여기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 5) 의과대학 신축 등을 돕는 전문 회사들이 있고, 가장 최근 지은 대학으로는 토마스 제퍼슨 의대가 있다. 우리 학교도 새로운 의대 신축을 준비할 시점이 되었다.

더 나은 의학교육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것이다. 2008년도의 AAMC 도 그런 많은 과제를 주고 있었다.